

<동화 심사평>

주먹밥 공동체와 증여정신

김진경, 한정기

문화인류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증여론에서는 재화를 신성재, 가치재, 교환재로 나눈다. 신성재는 예컨대 헌법, 인권, 신용 등과 같이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신성성을 갖는 재화로서 제3자에게 이전이 불가능한 재화이다. 가치재는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처럼 신성재의 복사로서 새로운 친족관계 집단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에 증여는 할 수 있지만 교환은 할 수 없는 재화이다. 교환재는 시장에서 상품교환을 하는 재화이다. 어떤 공동체든 신성재와 관련한 증여정신이 죽으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 예컨대 선비정신은 조선조를 오백년 동안 유지시킨 증여정신이었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조선은 멸망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주먹밥 공동체는 근래 우리 앞에 가시화된 우리사회의 살아있는 증여정신이다. 이 주먹밥 공동체의 증여정신은 경제 사회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무리 자본주의 화폐경제라 해도 신성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폐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경제에서 국가의 신용이라는 것도 일종의 신성재이다. 오늘날의 신용화폐제도는 국가의 신용 한도 안에서 화폐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신용 정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탐욕적 양적 완화는 갈수록 생활생태계를 고갈시키고 자본주의 화폐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주먹밥 공동체의 증여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의 증여적 경제를 되살리고 그를 통해 고갈된 생활생태계를 되살려내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심사위원은 <유별난 목공 집>이 위와 같은 증여정신, 증여적 경제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유별난 목공 집>은 지방에서 친구와 함께 가구점을 차려 돈을 벌어오겠다며 가족을 떠난 아빠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지역의 소규모 자본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대자본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버린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유별난 목공 집>은 지금 이 시대가 처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 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문학작품의 기본이 되는 탄탄한 구성과 끝까지 아이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간 점도 다른 작품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장.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억지스럽지 않은 전개 등이 응모자의 만만찮은 내공을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갔다.

해거리 하는 과일나무처럼 응모작도 해거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건취 올해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많은 응모작이 서사의 기본구조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다. 5.18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몇 편 있었지만 예년의 그만저만한 구성에서 벗어나는, 눈에 띄는 작품은 없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은 <아이수 아이수>, <좁쌀영감과 오래된 자전거>, <정글짐으로 놀러오세요>, <유별난 목공 집>, <503호 열차> 등이었는데 <유별난 목공 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데 쉽게 일치를 보았다. 탈락한 응모자들에게는 더 분발하라는 응원을 보내며 당선자에게 축하를 드린다. (*)